

사회

청소년 성범죄 부추기는 채팅 어플

사진 주고 받은뒤 언어·성폭력 잇따라... 대책 급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작위 채팅 어플이 청소년들에게 무비비로 노출되면서 문란한 성문화와 함께 성범죄로까지 이어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남자 고등학생과 여고·여중생이 채팅으로 사진을 주고받은 뒤 신원이 파악되면 언어폭력과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고교생 이모(16)군이 채팅 어플로 만난 여중생 A(13)양을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까지 찍어 보내게 한 사건(광주일보 10월23일자 6면)이 발생한 시점에 같은 학교 여중생도 다른 고등학교 학생에게 유사한 협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여중생은 이 같은 사실

을 친구에게 알린 뒤 학교 위클래스 상담을 받고 지난달 3일 경찰에 신고했다.

2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B(14)양은 을 들어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인근 고교생 C(17)군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냈다가 학교, 나이 등이 노출된 뒤 지속적으로 성폭행 협박을 받았다. B양은 이를 고민하다가 같은 반 친구에게 C군의 협박사실을 알렸으며, 학교폭력 담당 경찰과 피해자 부모 등이 함께 서부경찰 사이 버팀을 찾아 C군을 신고했다. 경찰에서 B양의 부모가 C군 부모의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당시 상담을 받았던 보건교사는 "피해 여학생이 협박에 시달려 겁을

먹은 상태였으며 다행히 신고가 돼 최악에 이르는 것은 막았다"며 "소극적인 성교육으로는 지금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란한 성문화에 대처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지난 20일 검거된 이군 역시 "신상을 감추기 때문에 변태들이 꽤 있으며 시작하자마자 함께 술 마시거나 성관계를 하려는 상대방을 찾는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이들 중학생들이 알고 있는 무작위 채팅 어플 '낯선 사람과의 대화'(사진)에 신분을 10대 여성으로 변경해 들어가자 곧바로 남성을

의 성관계 제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또 남자 중·고등학생들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야한 동영상 및 변태성행위 사이트 주소, 음란 동영상 등을 공유하고 있었다. 학교 측이 음란물 접속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고종석 화학적 거세 청구 검토

잡자던 7세 여아를 이불 채 납치해 나주 영산강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종석(23)에 대해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일명 화학적 거세인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 심리료 23일 오후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고종석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광주보호관찰소가 고종석에 대한 성적 습벽을 조사한 결과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고종석을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감정을 받게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현웃 팔아 이웃돕기

은 현웃을 팔아 수익금 전액을 이웃돕기에 쓸 예정이다.

광주시 북구 직원들과 새마을부녀회원들이 23일 동림동 산동고 친수공원 내 주차장에서 '햇 사랑나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현웃을 수거하고 있다. 이들을

나주명기자 mjna@kwangju.co.kr

미국 전화로 등록해 신분 속이고 안대 쓰고 기다리게 한 뒤 성폭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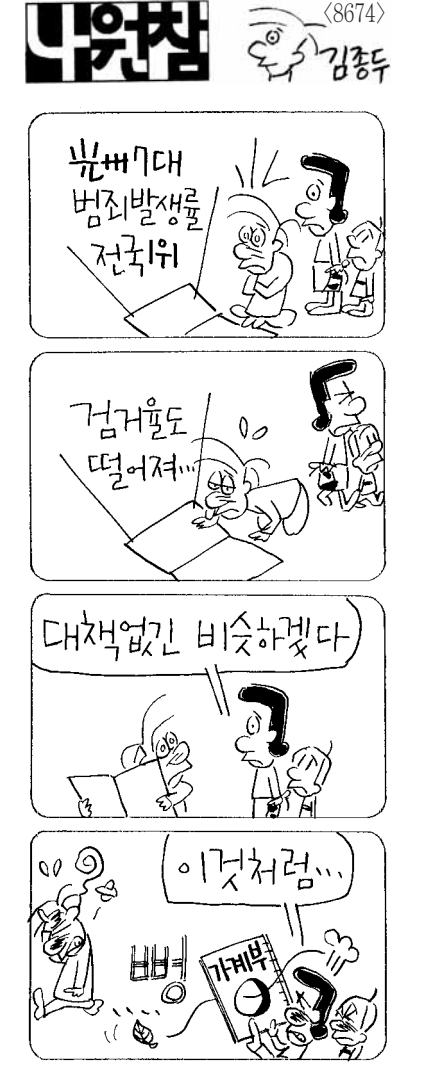
16세 범행 수법 악랄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을 감안했을 때 이군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가 나섰지만 '평범했던' 10대 이군의 범죄전력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군의 부모도 경찰에서 "반에서 10등 안에 들고 모범생이었던 아들이 이 같은 짓을 했을 리 없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경찰이 범행 동기를 캐기 위해 이군의 개인 컴퓨터를 뒤져 피해 여중생과 30대 여성의 나체사진, 피해여중생 성폭행 동영상, 변태 음란물 등을 찾아낸 뒤에서야 부모는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그러나 아직까지 이군이 어떻게 범죄수법을 익혔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학생 신분이라서 이군에 대한 신병처리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범죄수법을 감안해 마무리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성폭력 가해자 혀 자른 여성 정당방위"

의정부지검

성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검찰의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지검은 23일 억지로 키스를 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 1이 잘리게 한 혐의(중상해)로 입건된 A(여·23)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1시께 혼자 술을 마시러 가던 중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 이모(54)씨의 제안에 합세 술을 마시게 됐다. 이날 오전 6시께 의정부시 이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폭력 위협을 느낀 A씨

는 이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잡았다.

그러나 이씨는 문을 부수고 들어와 A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이씨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 1이 잘렸다. 이씨는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하고 언어장애를 입게 됐다.

경찰은 지난 9월3일 A씨를 중상해 혐의로, 이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성폭행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로 인정을 한다"는 결론을 냈다.

/연필뉴스

보성 한옥체험장 불 1억5000만원 재산피해

23일 새벽 4시23분께 보성군 득량면 강골마을의 전통가옥 체험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이 불은 식당 건물 165㎡와 냉장고, 식기류 등을 태워 1억46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체험동에는 학생 등 30여명이 숙박하고 있었으나 불이 나자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동부취재본부 김동백기자 kyb@

주부 등 남녀 혼성 '짓고땀' 도박

○주부, 택시기사 등 남녀 20여명이 자정까지 화투 도박을 하다 무더기로 경찰서 행.

○2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한식 건물 2층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A(50)씨 등 22명을 도박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집들이 왔다"며 협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속칭 '도리짓고땀'이라는 화투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누가 도박판을 벌였는지, 가담자가 누구인지 관망중.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도우미 독점 공급하려 범죄단체 조직

전남경찰, 조폭·업주 등 검거... 기자 둘 입건도

범죄단체를 조직해 유흥주점 여종업원 공급권을 장악하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속칭 '보도방' 업주들을 규합해 유흥주점 도우미 공급권을 독점하려한

남도지방에서 보도방을 흡수해 합법화했다고 거짓 교육을 시키는 한편, 업주들로부터 운영비로 3100만원을 받았다. 도우미에게는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으며 6300만원을 챙겼다.

더욱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지방 일간지 주재기자 2명에게 "경찰이 연과수사를 하고 있다"고 거짓 제보를 하고, 이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은 기자 2명을 배임수증 혐의로 입건했다.

/임동률기자 exian@

태양광발전 주택보급

농협 1년거치 5년 상환 자가부담 전액용자

한번의 선택으로 30년간 전기요금 걱정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국내산 인증품 모듈로 시공해 드리며 검수는 한전전기안전공사에서..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주택
- 누진세 때문에 걱정되는 주택
- 신축중이거나 신축예정된 주택은 물량부족, 미리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부족으로 신청을 했는데 태양광 설치를 못하고 있는 주택
-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시공가능
- 2013년부터는 태양광전문기업에서 자체사업추진 예정이며보조대상 용자사업으로 대체예정임
-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다음달로 저축해서 (여름이나 겨울에)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kwh)	요금(원)
100	7,010
200	21,230
300	42,370
400	75,270
500	124,340
600	207,470
700	284,480
800	361,490
1000	515,510

주최: (주)샘 에너지
광주 전남 동북부지역 062-528-3070 019-655-5678
전남 남서부지역 061-727-2371 019-624-2371

SCREEN GOLF

두암골프존

두암골프존 파격할인

REAL 18홀 14,000원 (연중동일)

오전(평일) 12,000원
오전 요금은 12:00시까지 티업시 적용합니다.

1. 골프존 기본형 18홀 12,000원 (연중동일요금)
오전(평일) 10,000원 (12시 티업까지)

- 편안하고쾌적한 최고시설 5개틀
- 전타석 스윙플레이트
- 인순타석(와이드 화면) 구비
- 단체경기(8~12인)를 위한 OPEN형 룸
- 골프채, 신발, 장 무료대여
- 오전은 12시 티업까지 적용(토,일제외)
-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 매니아 고객님을 위한 넉넉한 라커(무료)

필드의 느낌을 그대로,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 골프연습장

두암골프존 두암타운 사거리에서 순원도로쪽 70m [햇살 5층]
예약 ☎ 234-9999